

## “문학”과 낭만주의 - 문화론자들의 “문학” 비판 다시 읽기 -

유 명 숙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이글튼(Terry Eagleton)은 *Literary Theory*(1983)의 서두에서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개념을 낭만기의 산물로 규정한다.<sup>1)</sup> “literature”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글 전체”(the whole body of valued writing in society)를 가리켰는데,(17) 19세기를 전후하여 순문학(creative/imaginative writing)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고,(17-18)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학 개념을 이글튼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기원에 낭만기 문학을 놓는다는 것이다.(20) 문학을 현실과 무관한 음풍농월로 치부하는 것이야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이글튼이 낭만기와 순문학 개념을 연결하면서 부각하는 점은 탈이데올로기를 가장(假裝)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이다. 낭만기 문학이 시장(market)이나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서 유효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18-20) 문학 내지는 문학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서양 근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이다.(22-30)

---

1) 낭만주의가 범유럽적 현상이지만 유럽 각국의 국가주의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지역을 한정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는 면모도 없지 않다. 이글튼도 1790년-1830년 사이의 영국 낭만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글튼은 (현대 비평이론이 유행시킨 용어를 차용하자면) 문학 개념을 문화적 구성(cultural construct)으로 탈신비화한다. 낭만기를 전후하여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순문학 개념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부여해 왔음을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물론 이글튼만의 것은 아니었다. 현대 비평이론의 근거를 이루는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이 반인본주의의 가치를 높이 세우면서 “작가의 죽음”을 선언할 때 낭만적 예술가의 죽음을 말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 개념의 폐기도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넓은 맥락에서 보면 영문학과에 대한 지난 2, 30년간의 전방위적 비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영문학과 내부에서 교과과정 개편 등 제도적 변화가 뒤따랐고, 영문학과라는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부상한 것이기도 하다.<sup>2)</sup>

정전(正典) 논쟁에서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최근 2, 30년간 비평계의 쟁점도 문학 개념에 대한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요컨대, 자족적 영역으로서 문학이라는 범주가 남성 대가 중심으로 정전을 편성하여 고급 문학과 대중 문화의 이분법을 상정하는 한편, 남녀 차별과 계급갈등을 호도하기도 하고,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부추기면서, 식민지인들의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문화 연구에서 낭만주의를 대체로 초월적 이상주의, 문학 중심의 엘리트주의, 시인 중심의 인본주의로 정의하며, 따라서 경멸의 함의를 담아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영미 대학에 제도로 자리잡은 영문학과가 탈현실/탈역

---

2) 문화 연구 쪽에서는 스스로를 “anti-discipline”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 분야”라는 표현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으로는 그렇게 서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상에 국한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갈래로 진행되는 문화 연구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규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정전 중심의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면서 대중문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 따라서 당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 현실 개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하다는 점, 문학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과학으로의 경도가 나타난다는 점등을 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사의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개념에 기댄 결과 탈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고전학(Classics)과 역사 언어학(Philology)과의 차별성-전자에 대해서는 영어로 씌어진 문학의 가치를, 후자에 대해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부각해야 했던 영문학이 연구의 적법한 대상으로서 정전을 한정하게 되고, 또 대중문화와 거리를 둔 엘리트적 순문학 개념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물론 영문학과 내부에서 순문학으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것에 대해 만만찮은 반대가 있었으나,<sup>3)</sup> 20세기 중반 영문학과와의 주류 비평인 신비평이 자족적 영역으로서 문학 개념을 금과옥조로 삼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화론자들의 문학 폐기론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기도 하다. 또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문제는 있었던 셈이다. 문학 개념을 낭만주의와 연결짓는 것도 지난 반세기 여 동안 영문학과에서 낭만주의를 시인의 상상력의 절대성, 상징과 신화를 통한 유기적 통일성의 지향,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데 따른 초월적 경향으로 규정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맥간이 이를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한 것이 즉각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만큼 낭만주의 비평에 이상주의적 편향성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McGann 1983: 1-3)

[2]

그런데 영문학과라는 제도와 그 근거를 이뤄온 문학 개념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이글튼과 그를 추종하는 문화론자들이 그렇게 하듯 “문학”을 낭만기 문학의 산물로 단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문화 연구 쪽의 문학 개념 비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학

---

3) 리비스(F. R. Leavis)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정전 중심의 엘리트주의로 시비 걸 거리는 없지 않지만, 이스트호프가 그렇게 하듯 리비스를 순문학과 엮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Easthope 1991: 10)

개념을 문화적 구성으로 탈신비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함을 문제삼는 것이다. 적어도,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개념을 낭만기 문학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문학 개념을 낭만기 문학의 산물로 보면서 문화론자들이 그 준거로 제시하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혁명의 실패로 좌절에 빠져든 낭만적 예술가가 산업화와 부르주아의 부상에 대한 반발로 자족적 영역으로서 문학 개념을 만들어내고, 탈이데올로기의 문학 개념이 계급 갈등의 완충 지대로서 효용성을 인정받아 제도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 연구 쪽에서 보자면 꽤 쓸모 있는 줄거리이다. 문화 연구의 이론적 바탕인 맑스주의 역사관과도 맞아떨어지고, 또 이에 근거하여 영문학과를 도피적 이상주의, 반민중적 엘리트주의, 보편성을 가장한 인본주의로 공격할 입지를 차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따지고 들면 상당히 구멍이 많은 줄거리이다.

우선 프랑스 혁명의 좌절을 곧바로 문학 개념의 대두와 연결짓기는 어렵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30여 년 간은, 즉, 영국의 낭만기는 혁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벗어날 수 없는 시기였다. 혁명에 대한 찬반으로 갈린 영국 사회 전체가 이념 갈등의 장(場)이 되었고,<sup>4)</sup> 정치가 삶의 모든 층위에 스며든 상황은 혁명의 직접적 위협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무관한 자족적 영역으로서 순문학 개념이 이 시기에 나타난다는 문화 연구 쪽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화 연구 쪽에서는 19세기를 전후하여 literature의 의미가 “책과 글 전체”(the whole body of books and writing)에서 순문학(belles lettres)으로 바뀐다는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진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Williams 1983: 186) 하지만 순문학 개념이 18세기 중반의 문사인 영(Edward Young)이나 블레어(Hugh Blair)의 글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하면,<sup>5)</sup> 굳이 낭만기를 기점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4)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이 참여한 이념 대립의 장으로 드러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따라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Butler 1975: 15)

5) 영의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1759)와 블레어의 *Lectures on Rhetoric and*

낭만기에는 오히려 순문학 개념에 대한 반발이 나타난다고 해야 맞다. 과거의 시에 대한 낭만기의 반발이 삶과 동떨어진 언어의 장식적 사용(poeticism)에 집중되어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영이나 블레어가 시를 사적인 여가 활동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낭만기 시인들은 시(Poetry)를 상상력이 공감으로 구현되는 글 전체로 규정한다. 18세기 내내 진행된 글의 확산과 유통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엄청난 대변혁을 불러일으켰음을 목격한 이들로서는 문학을 포함하여 글의 공적 기능은 당연한 전제였다.<sup>6)</sup> 낭만기 시인들에게 밀튼(John Milton)이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 혁명의 실패로 낭만기 시인들이 탈정치로 나간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넓은 의미의 시가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현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견지하기도 한다. (Thompson 1969: 159)

낭만기 시인들이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시에 반대하는 것은 탈정치를 지향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 증폭시킨 이념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장(場)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시가 당대에 그렇게 읽혔다는 것은 아니다. 위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시는 19세기 초까지도 이념적으로 반체제에 속한 것으로 읽혔고 또 그런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바이런(George Gordon Lord Byron)이 굉장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지만, 또 한편 “미쳤고, 악하며, 알게 되면 위험하다”(mad, bad, and dangerous to know)로 요약되는 그의 평판으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 문학 개념의 구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가인 콜리지(Samuel T. Coleridge)도 1800년을 전후하여 쓴 시보다는 1820년대를 전후해서 쓴 산문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고 따라서 낭만기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낭만기 작가들의 초월적 경향이 문학 개념의 단초를 이룬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낭만기에 문화론자들이 비판하는 문학

---

*Belles Lettres*(1783) 참조.

6) 낭만기 이후 빅토리아조 시의 선두 주자인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과 브라우닝(Robert Browning)만 하더라도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심미주의적 경향이 강한 다음 세대의 시인들은 이러한 ‘촌스러움’을 극복한다.

개념이 이미 통용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학 개념의 초월적 경향이 산업화가 야기한 추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보는 것도 너무 막연한 이야기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부르주아의 자본 축적을 발판 삼아 산업화가 촉발되면서 현금 관계(cash nexus)를 궁극적 가치로 삼는 시장에 대한 낭만적 반발이 문화 개념으로 결집하되, 이러한 반발을 실천으로 구체화할 사회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산업화의 폐해에 눈을 돌리는 현실 도피로 나가고, 여기서 초월적 성향의 낭만적 문학 개념이 구성된다는 것인데,(Williams 1958: 30-48) 줄거리로만 보자면 프랑스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산업화에 대한 반발을 19세기 전후로 잡는 것이 문제가 된다. 프랑스 혁명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좌절하는 것이 이 시기이고, 옹건 그르건 “literature”의 의미도 이 시기에 순문학으로 바뀐다고 했으니 산업화에 대한 반발도 이즈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앞당겨 하는 이야기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일 세기 이상 지속된 제 1차 산업 혁명에 대한 반응은 그 전개와 확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18세기 중반에서 1800년 전후까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이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이 나타난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산업화가 엄청난 에너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sup>7)</sup> 괴테의 *Faust* 3부가 좋은 예이다.(Berman 1982: 60-71)<sup>8)</sup> 산업화에 대한 반발이 Luddite 운동(1812-17)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곁에 변

7)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에 나오는 “mills”를 산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읽는 것은 곤란하다. “mill”의 의미가 제분소에서 공장으로 바뀌고, 북부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이 남부로 파급되는 와중에 하는 이야기이니 말이다. 물론 블레이크의 시에서 “mill”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기계적 이원론을 표상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워즈워스의 경도도 산업화보다는 도시화에 대한 반발이다.

8) 개스켈(Mrs. Gaskell)의 *North and South*(1855)에 나오는 Mr. Thornton, 디킨즈(Charles Dickens)의 *Bleak House*(1853)에 나오는 Mr. Rouncewell이 긍정적으로 그려졌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화가 나타나는 시점은 기차의 출현(1830) 이후이고, 산업화가 야기한 급격한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는 19세기 중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프랑스 혁명의 좌절과 산업화에 대한 반발 사이에 반 세기 이상의 시차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문학이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적 영역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1800년 전후보다는 1850년 전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낭만적”이라는 단어에 초월적 함의가 실려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sup>9)</sup> 문화론자들이 문학 개념을 낭만주의와 연결하는 것은 이러한 용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비판하는 문학 개념은 낭만기보다는 빅토리아 조의 문화적 구성이라고 해야 맞다.

[3]

프랑스 혁명의 좌절이 곧 순문학의 대두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화에 대한 반발이 19세기 중반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낭만기 작가와 낭만적 예술가를 구분하여 쓸 필요가 생긴다. 낭만기 시인은 구체적 작가를, 낭만적 예술가는 문화적 구성으로서 19세기 중반 문학 개념의 부상과 맞물려 만들어진 인물형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암묵적 전제들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이 이데올로기 밖에 서 있을 수 없거니와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작가(author)가 놓여 있다면,<sup>10)</sup> 구체적 개인으로서 낭만기 시인이 아니라 문화적 구성으로서 낭만적 예술가로 봐야 한다. 물론 낭만기

9) 윌리엄스는 그 시기를 1880년대로 잡고 있고,(Williams 1983: 275) 버틀러(Marilyn Butler)는 1860년대라고 이야기한다.(Butler 1981: 1)

10) “낭만적”에 따옴표를 부친 이유는 맥간의 낭만적 이데올로기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낭만기보다는 빅토리아 조의 문화적 구성으로 보는 것이 맥간과의 뚜렷한 차이이다.

시인이 낭만적 예술가의 원형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시에 나타나는 초월적 경향이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는 것은 빅토리아 조이다. 이 시기에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려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개념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낭만적 예술가라는 인물형이 나타났고, 이러한 인물형을 낭만기 시인에게 소급 적용한 결과 낭만기 시인을 낭만적 예술가와 동일시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낭만기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은 따라서 전혀 의외의 일은 아니다. 낭만기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근 30 여년간 *Edinburgh Review*의 편집장이었으며, 워즈워스의 *The Excursion*의 서평 서두에서 “This will never do.”라고 일갈한 제프리(Francis Jeffrey) 같은 인물로 대표된다. 그는 포프(Alexander Pope)의 시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워즈워스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sup>11)</sup> 포프가 이름을 빌려준 문화적 헤게모니가 포프 생전보다는 사후—존슨(Samuel Johnson)이 사망하고 난 1784년 이후 한 세대 이상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낭만기 시인들이 변방의 시골뜨기(Lake school), 런던 토박이(Cockney school),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반사회적 인물(Satanic school) 취급을 받은 이유는 18세기가 만들어낸 문화적 헤게모니의 잣대가 그때까지도 유효했음을 보여준다.<sup>12)</sup> 포프가 대변하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비교적) 과거지사가 된 것은 1830년대가 되어서이고, 워즈워스가 시인으로서 명성을 얻는 것도 이 시기를 즈음해서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반발로 소위 낭만적 초월이 문화적 대안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Solitary”의 산보가 호소력을 얻게 되는 것도 이즈음이다. “자연 시인

11) 제프리는 개인적으로 워즈워스의 시에 감동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워즈워스의 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깎아 내렸다.(Butler 1981: 61-62) 이 시기에 모든 것이 정치로 통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12) 이렇게 말하면 포프에 대한 반대가 18세기 중반 이후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철크들러(Joseph K. Chandler)가 “the Pope Controversy”라고 명명한 논란이 1820년대까지도 지속될 만큼 포프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82)



위즈워스”도 낭만적 예술가라는 인물형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스는 *Culture and Society*(1958)에서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낭만기 작가들이 당대의 사회 현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예시하면서, 현실 초월적인 낭만적 예술가의 부상은 “대체로 [낭만기] 이후에 전개된다”(on the whole a later development)고 말한다.(30) 문화 연구에서는 이 점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낭만적 예술가가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 인물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윌리엄스에게도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산업화를 서술의 큰 줄기로 삼는 맑스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낭만기 문학을 산업화에 대한 반발로 단순화하기 때문에 낭만기 시인들의 현실 비판에 점수를 주면서도 낭만적 예술가의 현실도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비판과 현실도피 사이에 반 세기의 시차가 있음을 간과한 결과이다.

문화론자들은 윌리엄스의 통찰보다 그의 오류를 확대 재생산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이 무성해지면서 소위 문학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부각한 결과이다. 문화론자들의 문학 개념 비판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경제력이 부상하는 중산층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귀족 계급이 계급 갈등을 희석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중산층 길들이기의 수단으로서 문학 교육을 제도화했고, 중산층은 또 노동 계급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문학 개념이 제도로 자리잡는데, 낭만기 문학이 여기에 초월적 보편성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귀족과 부르주아의 계급적 타협에서 파생한 순문학 개념이 태생적으로 대중 문화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급 예술로서 문학을 신비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기에 탈식민주의 시각이 가세하면서 탈정치성을 배제한 문학 개념이 식민지 경영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선다. 문화 연구에서 문학 개념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순문학 개념의 부상이 낭만기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19세기 중반이라고 봐야 줄

거리가 맞아떨어진다.

[4]

문화론자들이 비판하는 문학개념이 낭만기보다는 빅토리아 조에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덧붙여, 소위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여러 갈래의 요인이 모여 중층 결정(overdetermined)되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 하나가 물론 낭만주의이다. 그런데 낭만적 초월로 따지자면 영국 낭만주의보다는 (1830년 이후에 영국에 본격적으로 수입된)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sup>13)</sup> 근대 국가의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후진적이었던 18세기 중반 독일의 인텔리겐치아에게 사회적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계층이 독일 낭만주의를 주도하면서 사회보다는 개인, 특별히 개인의 내면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Butler 1981: 73) 반면에 영국 낭만기 문학은 독일 낭만주의에 비해 현실비판적 성격이 더 강했지만, 1830년을 전후하여서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내면화 경향이 부각된다.<sup>14)</sup> 요컨대,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구성에는 영국 낭만기 문학보다는 독일 낭만주의의 초월적 경향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이 이러한 내면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빅토리아 조에 접어들면서 섭정 시대(Regency period)의 방탕에 대한 반발로 중

13)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간 독일 낭만주의는 1790년대에 이미 영국에 수입되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치적 반동이 심화하면서 기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개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컨대, 셸러(Friedrich von Schiller)의 *The Robbers* (1792년 영국 초연)나 코제부(August von Kotzebue)의 *Lovers' Vows* (1798년 영국 초연) 같은 작품은 자코벵주의의 예로 배척을 받는다. 독일 낭만주의가 다시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은 1830년 이후이다.

14) 영국 낭만기 작가 중에서 독일 낭만주의의 틀에 맞는 작가는 버틀러가 지적하고 있듯이 콜리지 정도가 아닐까 싶다.(Butler 1981: 72-76) 그가 독일 낭만주의의 수입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산층의 도덕주의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복음주의(Evangelicalism)가 부상하면서 퀘빈주의적 자기 성찰이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는다. High Church Movement를 포함하여 범대서양적 종교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즈음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내면화 경향을 부각하며 독일 낭만주의를 재수입하게 된 것이다.

영문학자가 대학에 자리 잡을 때 일찍부터 교육 제도를 정비한 독일 학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특별히 낭만주의 비평에 오래도록 남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애브람스는 마담 스탈(Madame de Staël)이 *De l'Allemagne* (1813)에서 독일 문화의 특성으로 지적한 내면적, 신비주의적 성향을 영국 낭만주의에 적용하는 것이고, 애브람스의 틀이 바이런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나선 맥간도 맑스와 하이네의 독일 낭만주의 비판을 영국 낭만주의에 적용하는 것이다. 맥간이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이상주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나서는 맑스의 *The German Ideology*(1846)와 하이네의 *The Romantic School*(1836)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따라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맥간이 말하는 낭만적 이데올로기는 영국 낭만주의가 독일 낭만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암묵적인 가정에서 출발하는 셈인데, 역사적 구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구성에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덧붙여, 낭만주의와 대척점에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리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특별히 자족적 영역으로서 문학 개념의 대두와 이에 근거한 문학 교육의 확립에 공리주의가 기여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공리주의자의 창시자인 벤섬(Jeremy Bentham)은 문학의 효용성을 아이들 장난감(push pins)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여기에 근거하여 디킨즈의 *Hard Times*(1854)에 등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상상력을 배제한 사실의 주입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과 상상력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전자의 편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문학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공리주의자가 *Hard Times*의 Gradgrind과 같은 인물은 아니다.

문학 교육의 제도화를 처음 언급한 인물은 공리주의의 선구자인 스미스(Adam Smith)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게 마련인 개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공익으로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주창하였다.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방향으로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 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문학 교육의 제도화를 다룬 커트(Franklin E. Court)가 영문학의 근거를 이룬 부르주아 문화 개념을 “주로 공리주의적”(predominantly utilitarian)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Court 1992: 20)

벤섬의 경우 문학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대의 대표적 공리주의자인 밀(J. S. Mill)이 상상력의 결여를 벤섬의 한계로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Leavis 1950: 61) 20대 중반에 엄습한 정신적 위기를 위즈워스의 시를 읽고 극복하면서 밀이 문학의 효용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밀의 경우, 문학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보다는 상상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낭만기 시인들의 영향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밀이 생각하는 바 상상력의 성격이 낭만기 시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더러 문학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낭만기 시인들에게 대문자 시(Poetry)는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된 글 전체를 가리킨다. 위즈워스가 시를 정의하면서 운문이나 산문이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셸리(Percy Bysshe Shelley)가 플라톤 등을 시인으로 간주하면서 시를 모든 지식의 총화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만큼 시를 포괄적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

15) 그런 의미에서 아놀드를 문학 교육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미스에 이어 1820년대에 공리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설립한 런던 대학에서 영문학 교육이 현실적으로 쓸모 있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용성이 인정되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Court 1992: 39-84)

낭만기 시인들이 말하는 시는 현실과 무관한 자족적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되 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낭만주의를 산업화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경우 상상력과 사실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상정하기 쉽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좌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낭만적 상상력은 사실의 반의어보다는 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역사적 필연성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의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sup>16)</sup> 상상력의 통합이 대안으로서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가 상상력의 통합을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 개인적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는 달리 밀이 말하는 시는 순문학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감정의 순화를 목표로 한다. “What Is Poetry?”(1833)나 “The Two Kinds of Poetry”(1833)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에게 있어 문학은 곧 서정성의 표현이다.<sup>17)</sup> 낭만기 시인들이 지향하는 개인과 사회의 통합과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이라는 것이다. 밀이 인정하는 바 문학의 효용성은 (낭만기 시인들과는 달리) 개인과 사회의 분리를 상정한다.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에 근거한 밀의 문학 개념은

---

16) “[Romanticism] entails an impulse and a demand for a principle of comprehension. It takes the form, characteristically, of an act of inclusion.”라는 발언 참조할 것.(Cooke 1979: xv) 현대 비평이론의 주요 갈래인 페미니스트 비평이나 탈 식민주의 비평에서는 낭만적 통합을 서구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자행하는 억압이자 보수적 경향의 낭만적 유기주의(Organicism)로 비판한다. 그러나 통합에의 낭만적 지향은 지향일 따름이지 유기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통합의 성격도 억압적이라기보다는 18세기 내내 지속된 이성으로의 경도에 따른 반발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경계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봐야 맞다. 완결된 시스템으로서 낭만적 유기주의는 낭만적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조의 문화적 구성이다.

17) 맥간이 낭만적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한 것으로 비판하기 전까지 낭만주의 비평의 전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M. H. 에브람스의 *The Mirror and the Lamp*(1953)는 주로 밀에 근거해서 낭만주의를 서정성의 표현으로 규정한다.(23) 맥간은 에브람스를 비판하되 낭만주의를 서정성의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답습한다.

여러 층위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분법적 분리가 공고해진 빅토리아 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8)</sup> 요컨대, 밀은 사회 개혁의 책임은 공리주의로, 개인적 감성의 치유는 문학으로 나눠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제한적 의미에서—문학을 개인의 감정 표현으로 규정하는 범위에서—문학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다.

밀의 문학 개념은 어쨌거나 문학의 효용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서정성과 내면화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문학 개념은 곧 심미주의자들의 초월적 미의 영역과 합류하면서 현실과 무관한 자족성을 띠게 된다. 산업화와 물질주의가 야기한 추함을 외면하면서 예술에 탈현실의 자족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개인과 사회, 문학과 현실의 분리를 심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국의 식민지 경영이 한 몫 거들고 나선다. 영국이 인도의 영국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성을 배제한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함에 따라 탈이데올로기적 문학 개념이 제도로 자리잡기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것이다.<sup>19)</sup>

이렇게 본다면 19세기 중반에 공고해지는 “낭만적” 이데올로기는 독일 낭만주의의 내면화, 공리주의적 개인관에 근거한 사적인 감정의 토로로서의 시 개념, 산업화의 폐해를 외면한 미학 이데올로기 등이 계급적/제국주의적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헤게모니로 자리잡는다고 해야 맞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낭만적 예술가라는 인물형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일반화한 인물형을 낭만기 시인들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이들도 현실을 초월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개념을 낭만주의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18) 디킨즈의 *Great Expectations*(1861)에 나오는 Wemmick이 이러한 분리를 극명하게 구현한다고 하겠다.

19) 정치성을 배제한 문학 개념에 근거한 문학 교육은 인도에서 먼저 실시되어 영국에 역수입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Gauri Viswanathan, *Masks of Conquest: Literar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New York: Columbia UP, 1989) 참조.

## [5]

문화론자들은 문학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낭만주의를 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는 역사 현실을 초월한 (초월했다는 허위의식에 빠짐으로써 오히려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이용되는) 문학주의로 한정된다. 문화론자들은 또한 이러한 문학주의의 기원을 낭만기 문학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따져 보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낭만주의=문학주의의 등식에 맞도록 낭만기를 전후한 역사적 상황을 단순화하여 실제로 문학주의가 언제 어떤 요소가 모여 구성되었는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낭만주의를 문학주의로 공격하면서 문학에 국한해서 낭만주의를 논한다는 데 있다. 문학 개념을 비판하기 위한 역사적 틀로 낭만주의를 거론되 정작 낭만주의가 문학에 국한할 수 없는 광범위한 문화 현상임을 간과한다는 것이다.(Campbell 1987: 180)

낭만주의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문학사조로서 낭만주의의 특징을 정의하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넓게 보면 낭만주의는 서양 근대와 함께 부상하는 개인적 욕망의 표현과 충족을 기쁨으로 느끼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Campbell 1987: 184) 욕망을 죄로 규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끝없는 욕망의 추구를 긍정하는 낭만적 세계관이 역동적 소비주의, 즉 욕망의 재생산으로 나간다는 캠벨의 지적은 낭만주의를 이렇게 넓은 맥락에 놓고 하는 이야기이다.

Romanticism provided that philosophy of 'recreation' necessary for a dynamic consumerism: a philosophy which legitimates the search for pleasure as a good in itself . . . [In this way it] served to provide ethical support for that restless and continuous pattern of consumption which so distinguishes the behaviour of modern man. (Campbell 1987: 201)

문학에서 문화로 시야를 넓혀 개인적 욕망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하게 되면 낭만주의는 글의 확산을 매개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소비에 참여하는 변화와 맞물린다.(Campbell 1987: 183) 문화적 소비가 문화 연구의 주된 관심사라는 점에서 낭만주의를 문학주의로 규정하고 치워버리는 것은 문화 연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낭만기에 초점을 맞출 때 서양 근대의 전개라는 커다란 흐름, 특별히 도시의 부상, 글과 정보의 확산, 소비문화의 본격화 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생긴다. 요컨대, 낭만주의를 산업혁명에 대한 반발에 따른 낭만적 초월 내지는 문학 지상주의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소비의 확산에 따른 광범위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논의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낭만기 시인들은 시를 이렇게 넓은 맥락에서 놓고 보았다. 위즈워스의 *Lyrical Ballads* 서문이 그 대표적 예이다.

For a multitude of causes, unknown to former times, are now acting with a combined force to blunt the discriminating powers of the mind, and unfitting it for all voluntary exertion to reduce it to a state of almost savage torpor. The most effective of these causes are the great national events which are daily taking place, and the increasing accumulation of men in cities, where the uniformity of their occupations produces a craving of extraordinary incident, which the rapid communication of intelligence hourly gratifies. To this tendency of life and manners the literature and theatrical exhibitions of the country have conformed themselves. (Owen 1974: 73)

위즈워스는 도시의 부상이나 글과 정보의 확산과 같은 당대의 사회적 변화가 대중적 소비 문화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야기했음을 부각하면서 이에 우려를 표명한다. 요컨대, 18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이뤄진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단조로운 일상에 갇힌 도시인의 자극에 대한 수요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폭동, 학살, 단두대의 등장, 프랑스 왕과 왕비의 재판과 처형, 암살, 전쟁, 쿠데타 등 센세이셔널한 뉴스로 증폭되면서 글이 '수동적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극적인 사건에 증독된 대중의 취향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제정신이 아닌 소설들, 병적이고 멍청한 독일 비극들, 한가롭고 터무니는 운문 서사의 홍수”(frantic novels, sickly and stupid German Tragedies, and deluges of idle and extravagant stories in verse)(74)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유포되면서 개개인의 분별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Lyrical Ballads* 서문을 낭만주의 문학의 선언문으로 보면 이런 면모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이 문건을 문화 비평으로 읽게 되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한 소비문화, 특별히 글을 매개로 한 소비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이 드러난다. 자극성과 선정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수요자가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선정적 이야기를 소비하는 현상이 독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직시하면서, 워즈워스는 *Lyrical Ballads*가 미력하나마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시도임을 분명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당대의 주류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한 느낌”(feelings of strangeness and awkwardness)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70) 이러한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문학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대변혁”(the revolutions, not of literature alone, but like wise of society itself)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70) 이러한 현실 인식이 블레이크, 셸리, 칼라일, 러스킨, 아놀드, 모리스 등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문화 비평과 맥을 같이 한다. 그 공과에 대해서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문화론자들이 문학 개념을 비판하는데 골몰한 나머지 이러한 시도 자체를 묵살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학만이 아니라 사회”로 표현된 포괄성은 문화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낭만주의를 문학주의로 단순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문학 대 문화, 순문학 대 대중문화의 이분법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은 문화 연구가 지향하는 바와도 어긋난다. 사실 문화 연구는 제도권 영문학과가 암암리에 상정하는 순문학과 대중문화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자족적 영역으로서의 문학과 대중문화의 이분법적 대립을 만들어 낸 영문학과에

대한 반발이 구체성을 띠면서 문화 연구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문학과와 순문학 개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입지를 취하게 되고, 대중문화의 입지에서 순문학을 공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순문학과 대중문화의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격에 골몰하다보면 이미 주어진 틀에 말려 들어가기 쉽다. 문화 연구에서도 영문학과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 광범위한 문화 현상으로서 낭만주의,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낭만적 문화 비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Works Cited

-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Oxford UP, 1953.
-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Harmondsworth: Penguin, 1982.
- Butler, Marilyn.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Oxford: Oxford UP, 1975.
- \_\_\_\_\_. *Romantics, Rebels and Reactionaries*. Oxford: Oxford UP, 1981.
- Campbell, Colin.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7.
- Chandler, James K. "The Pope Controversy: Romantic Poetics and the English Canon." *Canons*. Ed. Robert von Hallberg. Chicago: U of Chicago P, 1983.
- Cooke, Michael G. *Acts of Inclusion: Studies Bearing on an Elementary Theory of Romanticism*. New Haven: Yale UP, 1979.
- Court, Franklin E. *Institutionalizing English Literature: The Culture and Politics of Literary Study, 1750-1900*. Stanford: Stanford UP, 1992.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Easthope, Anthony.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1.
- Leavis, F. R.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 Cambridge: Cambridge UP, 1950.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83.
- Owen, W. J. B., ed.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 Thompson, E. P. “Disenchantment or Default? A Lay Sermon.” *Power and Consciousness*. Ed. Conor Cruise O'Brien and William Dean Vanech. New York: New York UP, 1969. 149-81.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London: Chatto & Windus, 1967.
- \_\_\_\_\_.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Oxford: Oxford UP, 1983.

《Abstract》

## “Literature” and Romanticism: Rereading Culturalist Critique of Literature

Ryu, Myung Sook

Terry Eagleton's demystification of the concept of literature has become a rallying point for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On the strength of this demystification, they have criticized the English department which have uncritically accepted the idealist concept of literature.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have also demonstrated quite convincingly that the idealist concept of literature is thoroughly ideological.

W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in this eager demolition of the concept of literature is its Romantic origi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literature as defined by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omantic period. The traces of Romantic poets are there, but their idealistic tendencies were amplified by the lenses of German Romanticism which became influential in Britain only after the 1830s. It further argues that the so-called Romantic concept of literature was a Victorian rather than a Romantic cultural construct; J. S. Mill, an eminent Victorian utilitarian, was more influential in propagating the concept of literature than the Romantic poet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distinction made between Romantic poets and the Romantic Artist: the former are particular individuals whereas the latter is a cultural construct which came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 of autonomous and transcendental literature.

In criticizing the concept of literature,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have confined Romanticism to literature. This is not a wise move for cultural studies. Romanticism is a wide-ranging cultural phenomena which legitimates the search for pleasure, and, therefore, i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consumer society. It will be much more rewarding for cultural studies to take interest in Romanticism in this larger context rather than to relegate it to the realm of “literature” as defined by themselves.